

[사회]

“중국여행 취소해 줘요”

쓰촨성 대지진에 잇단 해약...광주 여행업계 된서리

지난 12일 중국 쓰촨(四川)성에 서 일어난 대지진 사태로 광주지역 여행업계가 된서리를 맞고 있다. 지진 피해로 불안해 하는 시민들이 예약했던 중국 여행 상품을 취소하거나 다른 국가로 변경하고 있다.

광주지역 여행업계들은 “고환율로 인해 가격이나 어려운데 중국 지진사태 이후 ‘중국여행이 안전하냐’는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예약도 줄어들고 있다”며 한숨지고 있다.

여행업계는 이같은 현상이 해외 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H투어 광주지점의 중국 쓰촨성 패키지 경우 인천에서 출발하는 청도-구채구-낙산대불 등의 상품을 판매해왔으나 지진으로 일시 중단됐다. 뿐만 아니라 중국 지진의 여파로 예약 손님이 50% 가량 줄어들었고 중국 여행은 문의조차 끊겼다.

또 지난 12일 중국 청도를 방문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려던 관광객 150여 명이 공항 폐쇄로 일정보다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귀국하는 등 문제가 발생해 대체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광주시 서구 여행사와 북구 K여행사에도 중국 관련 상품의 예약률이 20% 가량 떨어졌고, 다른

나라로 여행지를 변경해 달라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시민 강현섭(37·광주시 남구 봉선동)씨는 “중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지진이 다시 발생할 것을 우려해 취소할까 고민 중”이라며 “마을에서 단체로 중국 여행을 가려던 부모님들은 이미 취소한 상태”고 말했다.

H투어 관계자는 “아직 예약 취소가 많지는 않지만 안전에 대한 문의가 줄을 잇고 있다”며 “비수기가 아직은 관망지만 곧 있을 여름 성수기까지 이런 현상이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학교 자율화 계획, 사교육 부추긴다”

전교조 등 반대투쟁기로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의 세부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은 시교육청의 자율화 계획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생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교조·도교육감 회의와 부교육감 회의에서는 논의된 내용과 마찬가지로 광주에서도 ‘0교시 수업’이나 ‘우열반 편성’은 금지된다.

시교육청은 13일 교과부가 폐지하기로 한 29개 지침 중 23개는 폐지하고 6개는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정·보완 대상 지침은 ▲학부부교재 선정 지침 ▲계약제 교원운영 지침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 ▲학교체육 기본방향

등이다.

시교육청의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전이나 너무 늦은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해 ‘0교시’ 수업을 사실상 금지했다. 또 전과목 총점에 의한 ‘우열반 편성’은 금지되며 영어·수학 등 교과 중심으로 중1~고1의 수준별 이동수업을 권장토록 했다.

학부부교재 선정은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부 부담 등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방과후학교에서 초등 교과 프로그램의 운영을 금지하되 부진학생 지도 등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전교조 등 지역 교육·사회단체들은 시교육청의 이번 발표와 관련, 14일 오전 11시 시교육청 앞에서 광주·전남공공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학교 자율화 반대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상쾌한 하늘 5월 14일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었으며 대체로 맑았다.

구분	구름	조금	9~20°C
광주	구름 조금	10~17°C	
전남	구름 조금	11~19°C	
전북	구름 조금	8~18°C	
충청	구름 조금	5~21°C	
경상	구름 조금	7~19°C	
강원	구름 조금	6~20°C	
제주	구름 조금	8~20°C	
울릉도	구름 조금	6~21°C	
독도	구름 조금	8~18°C	
거제도	구름 조금	7~20°C	
부산	구름 조금	8~20°C	
대구	구름 조금	6~21°C	
대전	구름 조금	7~20°C	
충주	구름 조금	8~20°C	
청주	구름 조금	6~21°C	
영광도	구름 조금	8~20°C	
제주	구름 조금	6~20°C	
독도	구름 조금	9~18°C	

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0.5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0.5~1.0m
남해동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1.5m
목포 밀물 < 09:55 썰물 < 02:43
목포 밀물 < 22:32 썰물 < 15:32
여수 밀물 < 04:56 썰물 < 11:25
여수 밀물 < 17:47 썰물 < 23:34

▲해돋이 05:29 ▲해질 19:29 ▲달돋이 14:10 ▲달질 02:11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주간날씨

날짜	15(목)	16(금)	17(토)	18(일)	19(월)	20(화)
날씨						
최저/최고	8/24	12/26	12/27	13/27	14/23	13/24



“병원 급식 미 쇠고기 사용 말라” 보건의료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3일 광주시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자급식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위정기자 jrwi@kwangju.co.kr

보수단체 “조선대 등 비리혐의 고발”

조선대 “무고죄로 법적 맞대응 할 것”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사학법인의 임시이사 체제 해소를 위해 정상화 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보수 성향의 교육단체들이 조선대를 비롯한 임시이사 파견대학을 비리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조선대측은 정이사 체제로 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보수단체의 명분없는 방해책이며, 고발 사유로 든 문제는 이미 검찰의 수사결과 무혐의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등 5개 교육·학부모 단체로 이뤄진 ‘임시이사 파견대학 부정·비리 대책위원회’는 1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

리혐의가 있는 임시이사 체제 대학 8 곳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밝힌 비리혐의 대학은 조선대와 세종대, 삼지대, 경인여대, 대구대, 광운대, 제주산업정보대, 대구에솔대 등 8곳이다.

조선대 김하림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들이 문제삼고 있는 전 총장 문제 등 검찰에서 이미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있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며 “민약 검찰에 고발한다면 명예 훼손이나 무고로 법적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지리산에 눈

고지대 6~7cm 내려

지리산에 눈이 내렸다.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12일 밤 10시30분부터 지리산 고지대의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해 13일 오후 6시 현재 6~7cm의 적설량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눈이 내린 곳은 해발 1천700m 이상으로 이날 지리산을 찾은 탐방객들은 초여름에 때아닌 설경을 감상하는 행운을 누렸다.

장터목대피소 박덕수 팀장은 “매년 지리산에서 관측되는 마지막 눈은 4월 말께인데 올해는 5월 중순에도 눈이 내리는 이상현상을 보였다”고 말했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떼죽음 꿀벌 부검?

양봉업자 “시 방역 때문”

나주시, 국과수에 규명 의뢰

지난 3월 광주에서 지렁이가 단팔 빵이 나오면서 지렁이가 감식 대상에 오른 이후 이번에는 꿀벌이 국과수의 감식물로 오르게 됐다. 나주에서 꿀벌이 집단 폐사, 경찰이 폐사 원인을 놓고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나주시 반남면에 사는 이모(55)씨는 기르던 꿀벌이 지난달부터 폐사해 수천만원대의 피해가 났다며 나주경찰서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이씨는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뒤 대대적인 방역작업이 이뤄지던 지난달 중순부터 벌이 죽기 시작, 430군(群·통) 가운데 70~80% 가량이 폐사했다”며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밝혀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살아있는 나머지 벌들도 할 기가 없는 등 폐사 직전인 사육사 양봉을 포기했다”며 “죽은 꿀벌 가격만도 6천만원대에 이른 다”고 주장했다.

꿀벌을 기르던 장소와 AI 발생 장소 및 방역 초소와의 거리는 250~300여m로 이씨는 방역 소독약품으로 인해 피해가 났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방역작업을 실시한 나주시의 입장은 다르다. 시는 “AI 소독약품 살균제로 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정확한 폐사원인 규명을 국립수의과대학검역원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j@kwangju.co.kr

경찰, 촛불집회 주최자 사후 처벌

광주·전남은 불법성 없어

경찰이 최근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미국 쇠고기 반대 촛불 문화제 집회 주최자에 대해 사후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촛불 집회는 사실상 불법 미신고 집회로 불법인 만큼 주최자에 대해서는 사후 처벌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은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의 경우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와 전남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치적 구호가 나오거나 정치 집회로 변질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문화행사 위주로 치러지고 있는 촛불 집회가 시위로 번지거나 정치적 집회로 변질할 경우는 문화제가 아닌 집회로 간주돼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터넷 피담을 수사 중인 검·경이 인터넷 사이트에 악의적 글을 올린 21명의 아이디를 선별, 신원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연합뉴스

상록스크린골프 대회

메카패스 배

상록스크린골프대회

2008년 5월 17일(토) ~ 19일(일)

장소: 상록스크린골프장

문의: 361-8837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부동산 거래비 부른호수 화산 사설의 자연IN 전원주택마을

청정호수 전원주택단지 분양

30평, 45평, 60평

문의: 361-6070